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된 자

우리 승리제단의 교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교리가 하나밖에 없어야 맞는 것이지 두 가지로 있으면 맞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가 되어야 영생이요, 하나가 되어야 바로 이제그대로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되어야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고로 교리가 하나밖에 없어야 그게 맞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제단의 교리야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새깁니다.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존재할 수 없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고로 '형제의 죄가 내 죄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형제 죄가 내 죄요, 이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형제 사정이 내 사정이요, 이제그대로 형제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므로 이런 자유율법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이제그대로 구원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면 바로 죄가 없어졌다가 되고 나라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되면 바로 마귀가 없어졌다가 되고 바로 나라는 게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그대로 나를 버리는 비결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개체의식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욕심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몸인 고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이제그대로 내 몸이 가졌다가 되는 고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과 탐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각 때문에 욕심도 안 나오고 탐도 안 나오는 고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율법의 근본이 이제그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이제그대로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이 바로 이제 다른 자유율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이기에 같은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영인 고로 마귀 영은 분열의 영인 고로 하나님을 가지고 둘로 쪼개고 둘 가지고 넷으로 쪼개고 넷을 가지고 여덟로 쪼개고 여덟로 열여섯으로 쪼개고 열여섯을 삼십이로 쪼개고 자꾸 쪼개나가는데,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 하나님이 되는 율법, 마귀를 죽이는 법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그러나 이제그대로 천 가지 만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은 바로 화복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하나의 신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이 화복의 신이 화복의 영이요, 화복의 영이 화복의 마음인 고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건, 바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마음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면 그게 바로 마귀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율법도 되지만 바로 마귀를 죽이는 법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마귀를 죽이는 이제그대로 무기인 고로 그러므로 이간자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



구세주 조희성님

고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질그릇 깨뜨리듯 무얼 깨뜨리느냐 하면 바로 마귀의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철장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교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우리 제단의 교리는 영생의 교리요, 마귀 죽이는 교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고로 영생하는 비결의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됐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지, 누구든지 내 몸처럼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된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고로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성경으로 거듭난 마음이요, 이제 성경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입니다. 생명과일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요, 믿음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 진리란 간단한 게 진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고 그는 바로 죄와 상관 없는 자가 이제 됐고 죄와 상관 없는 의인이 됐다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하는 말이 성경이나 불경에 있는데 이제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건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어려운 건 왜 어려우냐 하면 마귀가 이제그대로 한 가지를 가지고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로 쪼개놓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그대로 진리라는 건 하나요, 이제그대로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는 바로 지혜의 근본인 바로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이 하나요, 이제그대로 진리가 하나인 고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일찍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그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게 이제 바로 하나님 되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우리 제단

식구들은, 이제그대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제단의 교리를 어기는 것이 되고 또한 자유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생활이 된다는 걸 잘 알기에, 미운 마음이 나올 수가 없고 또한 욕심이 안 나오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진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라니까 바로 인간 조희성이냐 구세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했죠?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했죠? 인간 조희성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말한다.' 한 고로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자신의 사정을 말한 것뿐이지, 인간의 사정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또는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것이올시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자기 말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말을 한다고 그래? 성경이 말한다 그거죠?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말한다 그거죠? 이건 상식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속에 있어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신이 직접 이 사람의 입을 통하게하고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신이다.'라는 것을 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영육일체설을 논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영육일체를 논한 것을 가지고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나 불경에 영육일체설로 쓰여있어요? 이 사람이 새로 말하는 거예요? 영육일체설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나 불경이나 바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그대로 물질 자체가 신이요, 신 자체가 영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는 말인 고로 분명히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그대로 사람이 신이라면 바로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어요? 너희들은 신이라는 건 육체까지 너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체가 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제그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로 바로 사람 자체가 신이라는 전제적인 의미를 논한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사람의 몸이 신으로, 이제 사람의 몸이 이제그대로 신이 아닌데 신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 말이예요? 사람의 몸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사람 몸 자체가 신은 신인데, 마귀의 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며,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인 고로 다른 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나 불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성경과 불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이 되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그대로 성경이나 불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고 그랬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었었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분명히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속에 있다는 이 사람의 설명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 2020년 3월 4일 본부제단 예배 시간에 방영된 말씀으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vimeo.com/395336028>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4)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

(지난호에 이어서)  
기브온의 대사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맹세를 듣고 우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 이 뺨은 고향을 떠날 때 갖 구운 것인데 지금은 보십시오



▲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오. 이렇게 마르고 고평이가 피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들어있는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는데 이같이 낡았습니까. 옷과 신발도 먼 거리를 걸어온 탓으로 이처럼 낡고 헤어졌습니다."하고 천 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서로 사이좋게 산다는 강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도 이를 어김없이 지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히위 사람들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서남쪽으로 30킬로미터쯤에 있는 부유한 기브온 성읍으로 들어왔지만, 3일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 《8장 여호수아》

# 2절: 여호수아와 히위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위 사람들을 소환하여 따지면서 제안하였습니다.

"너희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거짓말로 속인 너희는 모두 노예가 되어 여호와와 집을 위해 나무를 때며 물을 길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동의하였습니다.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주셨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의향에 좋도록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화종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때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히위족속을 제외한 아모리 족속과 같

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여러 족속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했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다만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 히위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고 놀라운 일로 중시하였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 보낸 대사처럼 가장(假裝)하고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졌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좋다는 겸손함을 갖추어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5) 여호수아를 따른 태양과 달

예루살렘 왕은 여호수아가 히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는 강화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기브온은 돈이 많고 훌륭한 성읍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용감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은 헤브론 왕 호화과 아르뫼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예글론 왕 드빌과 의논한 끝에 기브온을 쳐부수려고 쳐들어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했습니다. "곧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엘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했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다만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 히위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고 놀라운 일로 중시하였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 보낸 대사처럼 가장(假裝)하고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졌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좋다는 겸손함을 갖추어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겁내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의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는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아모리 사람들이 방어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닥쳐 많은 아모리 사람들을 격퇴시켰습니다. 오후에 이르러서도 도망치는 아모리 사람들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습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기브온에서 서북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브온은 돈이 많고 훌륭한 성읍이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 10킬로미터쯤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로 도주하였습니다.

그 때 여호수아는,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이여,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마무르고 달도 정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쳐부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산지와 계곡과 샘 곁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모든 왕들을 멸하고 살아서 쉬는 것은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기브온의 투항 이외에 모든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리하여 싸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인절라